

# 고흥·보성 민주통합 예비후보 8명 혼전양상

### 최 인기 20~60대서 높은 지지... 소지역주의 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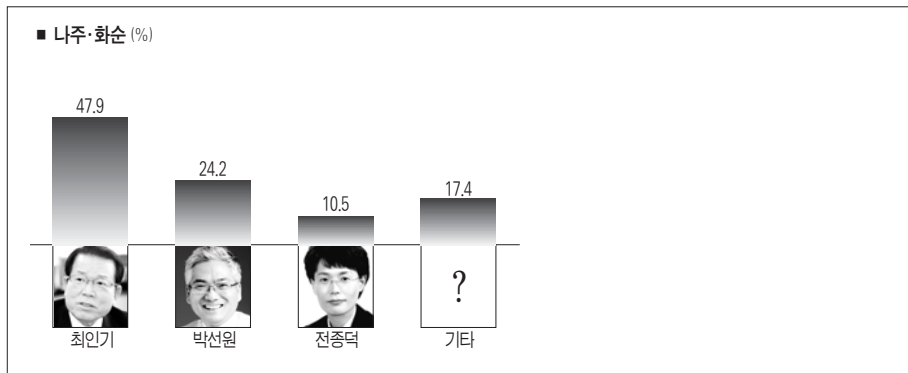
### 도·농 복합지역, 3선 도전 우윤근 지지기반 탄탄

#### 나주·화순

화순 민심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나주·화순은 민주통합당 최 인기 의원이 두 후보를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자 대결에서 최 의원은 47.9%의 지지율을 기록, 1위를 차지했다. 이어 참여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후보가 24.2%, 화순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화순군위원장인 전종덕 후보가 10.5%를 기록했다. '지지후보가 없다'는 응답자는 17.4%였다.

최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 통합과정에서 당내 중재역할과 함께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었다는 평가와 높은 인지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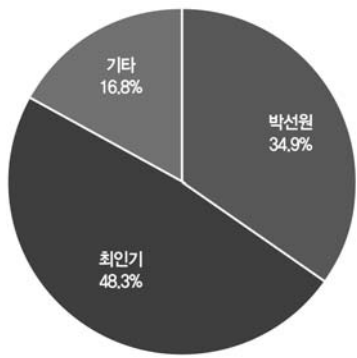
이를 반영하듯 최 의원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38.2%~57.5%의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박 후보는 50대(32.8%)에서, 전 후보는 30대(15.5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.



민주통합당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는 최 의원이 48.3%의 지지율로 34.9%를 기록한 박 후보보다 13.4%포인트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. 이는 다자대결 격차(23.7%포인트)보다 좁아진 수치다. 지역별로는 나주에서 최 의원이 54.9%로 박 후보를 24.9%포인트 앞선 반면, 화순에서는 40.4%를 차지한 박 후보가 최 의원을 1%포인트 앞섰다.

3선에 도전하는 최 의원과 이에 맞서는 박 후보 모두 나주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, 화순 민심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.

민주통합당 후보 가상대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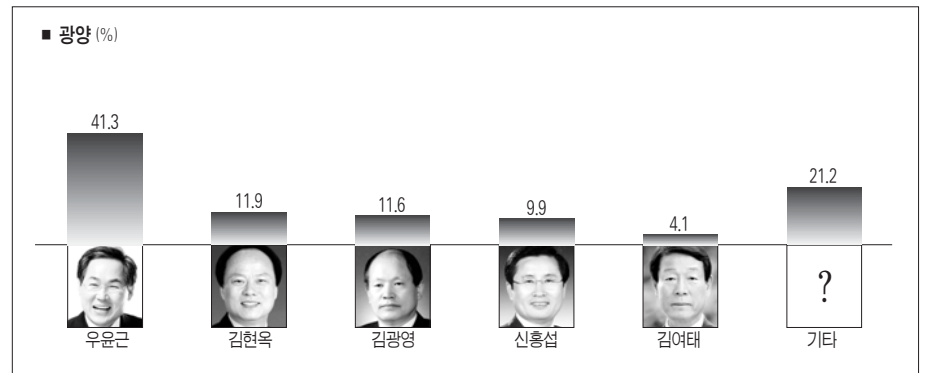
#### 광양

광양은 3선에 도전하는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이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다자 대결에서 우 의원은 41.3%의 지지율을 보였다. 이어 김대중 대통령 후보 광양시 선거대책본부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현옥 후보가 11.9%, 광주대 행정학교수 출신의 김광영 후보가 11.6%, 전남도위원을 지낸 신홍섭 후보가 9.9%, 육군 장군 출신의 김여태 후보가 4.1% 등의 순이었다.

'지지후보가 없다'는 응답자는 21.2%였다. 우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한 이유는 현역 프리미엄에 높은 인지도 때문으로 분석된다.

연령대별로는 우 의원이 다양한 연령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, 다른 후보들은 특정 연령의 지지세가 뚜렷했다. 우 의원은 19~20대부터 60대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에서 낮게는 38.1%, 높게는 44.5%의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 김현옥·김광영 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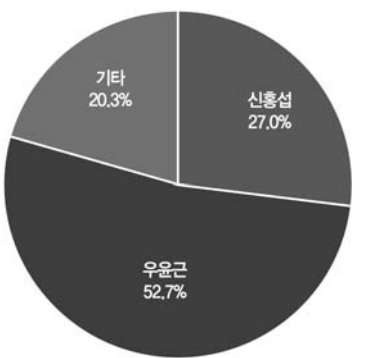


보는 19~20대(14.3%, 13.8%), 신 후보는 50대(11.6%), 김여태 후보는 60대 이상(6.4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.

민주통합당 후보 간 가상 대결에서도 우 의원이 52.7%의 지지율로 27.0%를 기록한 신 후보보다 25.7%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.

다만, 아직까지 우 의원의 아성을 넘을 후보는 없지만 도·농 복합지역인 광양의 경우 도·농간 성향차이가 커 선거판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.

민주통합당 후보 가상대결



### 선거구 통합 관심속 고현석·국창근·이개호 3파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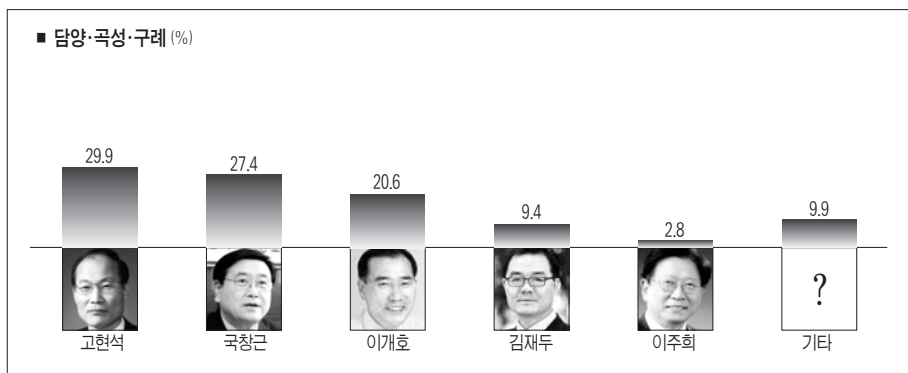
### 박상천 불출마 여부 관심... 장성민 전 연령대 고른 지지

#### 담양·곡성·구례

현재까지 민주통합당 후보들간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체 후보 지지도에서 고현석(29.9%) 전 곡성군수, 국창근(27.4%) 전 국회의원, 이개호(20.6%)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3강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김재두 김대중정부 청와대 행정관(9.4%)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주희 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2.8%를 얻는데 그쳤다.

3개 군으로 형성된 지역구인 탓인지 소지역주의가 지지 후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. 곡성 출신인 고 후보는 곡성에서 53.1%의 지지를 얻었으나 국 후보(21.8%)와 이개호 후보(12.2%)는 평균 지지율에 못 미치는 기록을 얻었다.

반면, 담양에서는 담양 출신인 국 후보와 이개호 후보가 39.6%와 27.8%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. 3개 군 중 인구가 가장 많지만 지지세를 나눠가지면서 고 후보에 다소 뒤진 것으로 보인다. 고 후보는 12.9%를 얻는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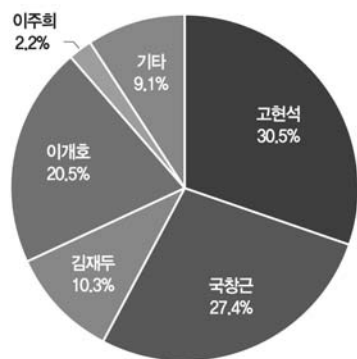


그쳤다. 연령대별로는 고 후보와 국 후보가 50~60대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이개호 후보는 20~40대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.

하지만, 이 지역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통합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보들은 정각 경쟁에 앞서 지역구 유지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.

또 현역 의원이 서울로 자리를 옮기게 따라 야권연대 지역으로도 거론됐었으나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1.9%에 불과해 민주통합당(70.4%)과 한나라당(5.9%)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.

민주통합당 후보 가상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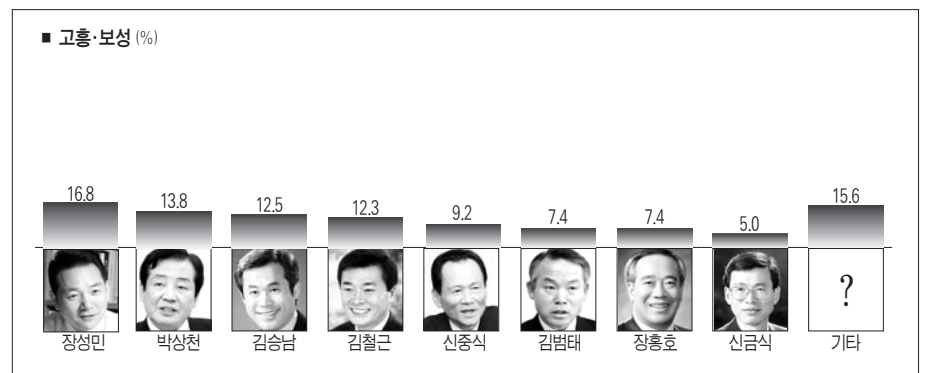


#### 고흥·보성

9명의 후보가 자용을 겨루고 있는 가운데 이 중 8명의 후보가 민주통합당 소속이고 신금식 후보만이 무소속이다.

전체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장성민 후보가 16.8%의 지지율로 선두를 기록했지만 2위권과 차이는 오차범위(±3.1%P) 내였다. 이어 박상천(13.8%), 김승남(12.5%), 김철근(12.3%) 후보가 2위권을 형성했으며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신종식 후보(9.2%)와 장홍호(7.4%), 김범태(7.4%)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무소속 신금식 후보는 5.0%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.

민주통합당내 후보 경선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지지 양상을 보였다. 장성민 후보가 16.9%로 1위를 기록했으며 박상천(13.1%), 김철근(13.0%), 김승남(12.4%) 후보가 뒤를 이었다. 이어 신종식(10.8%), 김범태(10.1%), 장홍호(9.7%) 후보가 하위권을 형성했다.



선두를 차지한 장성민 후보는 고흥군에서는 다른 후보에 오차범위 내지만 의미 있게 앞선 반면 보성군에서는 박상천 후보와 박상천의 경합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장성민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으며 김철근 후보는 60대 이상에서, 김승남 후보는 20~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. 이 지역의 최대 변수는 현역 의원인 박상천 후보의 출마와 후보단일화 여부. 현재 2위권 후보인 김승남, 김철근 후보는 모두 박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들의 표가 분적될 경우 경선구도는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민주통합당 후보 가상대결



## 영암효요양병원

###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

자식된 마음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.

**진료과목**

- + 내과/외과/한방과/가정의학과/정형외과

**진료 대상자**

- + 근골격계질환자
- + 호흡기계질환자
- + 뇌혈관질환자
- + 각종 암 환자
- + 기타

**진료 대상자**

- + 양·한방 외래 및 입원치료 (협진)
- + 대학병원 및 3차 의료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
- + 전문 간호인력 및 간병사의 24시간 간호 처치 제공
- +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를 위한 집중 치료실 운영
- + 뇌졸중·치매 노인 노인성 질환 전문 치료 서비스
- + 전문요양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

**찾아오시는길**

**영암효요양병원**  
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308번지  
전화 (061)471-6888~9 팩스 (061)471-6890

**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**  
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841-14번지  
전화 (061)542-3004~5 팩스 (061)542-3005